

# 부패사회를 해부하는 도덕이성과 정의구현이라는 환상 —TV드라마 〈비밀의 숲〉을 중심으로

이정옥\*

1. 서론
2. 부패사회를 해부하는 도덕이성과 기표적 살인에 의한 설계
  - 2-1. 소시오패스적인 탐정과 기표적 살인
  - 2-2. 기표적 살인에 의한 설계와 도덕이성에 의한 해부
3. 부패사회에 대한 환멸적 고발과 정의구현이라는 환상
  - 3-1. '비밀의 숲'의 은유적 전이와 부패사회에 대한 환멸적 고발
  - 3-2. '시대가 만든 괴물'과 정치적 사유에 의한 정의구현이라는 환상
4. 결론

## 국문 요약

본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웰메이드 드라마로 인정받은 〈비밀의 숲〉을 범죄서사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기존의 TV드라마 연구에서 추리물 혹은 수사물이라는 장르 드라마로 국한시켰던 도식적이고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범죄서사(Crime Fiction)라는 폭넓은 관점으로 접근했다.

〈비밀의 숲〉은 한국사회의 동시대적 부패상을 폭로하는 사회파드라마에 대중들이 즐기는 추리드라마를 외피로 입혀 사회를 향한 비판과 재미를 고루 갖춘 범죄서사이다. 따라서 범죄이야기와 탐색이야기의 이중구조를 차용하면서도 은폐와 탐색의 공식을 위반하는 설계이야기가

---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겹쳐지면서 텍스트의 의미가 확장되는 액자구조를 이룬다. ‘비밀의 숲’으로 재현된 공간은 패쇄적인 검찰이자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에 의해 무소불위의 부와 권력을 축적한 부패한 한국사회의 은유이다. 이 공간에는 어둠의 시대에 순응하며 사적 소유와 이익에 함몰되어 있는 부패한 인물들이 거주하는 한편, 부정부패로 얼룩진 어둠의 시대를 탈피하기 위해 저항하는 정치적 사유자들이 공존한다. 전자의 인물들을 통해 부패사회를 환멸적으로 고발하고, 후자의 인물들을 통해 정치적 사유로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정의구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형 범죄서사, 또는 한국형 장르 드라마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이거나 저널리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의 틈새를 모색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밀의 숲>의 분석에 중점을 두어 한국 범죄서사 드라마의 계보나 사적 추이를 상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주제어: 범죄서사, 부패사회, 도덕이성, 도덕감정, 기표적 살인, 정치적 사유, 환멸적 고발, 역설적 환상)

## 1. 서론

<비밀의 숲>은 방영(tvN, 2017.6.10.~7.30.) 당시부터 “K-드라마의 품격을 높인 드라마”, “한국 드라마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극찬을 받았다.<sup>1)</sup>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극찬을 받은 드라마

1) 하성태, 『한드 품격 높인 <비밀의 숲>, 마지막회 대사가 압권』, 『오마이뉴스』, 2017.6.2; 허지웅, 『한국 장르 드라마의 지각변동 <비밀의 숲>』, 『씨네 21』, 2017.8.1.

라면 한 시대를 대표하는 ‘국민드라마’의 대열에 오른다거나 역대 드라마 중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비밀의 숲>은 최고 시청률이 6.6%대에 머물러 폭발적인 흡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국제 TV드라마 TOP 10에 입선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웰메이드 드라마’로서의 진가를 인정받았다.<sup>2)</sup>

지금까지 <비밀의 숲>에 대한 관심은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극찬의 수사에 머물러 있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의 관심은 주로 세계적인 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Netflix)로터 지원 받은 풍부한 자금력(회당 20만 달러 총 36억 원)으로 무명작가의 순수 창작물이자 첫 장편 데뷔작을 과감하게 채택하여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기존의 드라마 제작방식과 흥행방식을 성공적으로 벗어났다는 점, 현실사회를 차용하면서 동시대 사회의 문제점을 잘 포착한 장르드라마라는 점에 쏠려 있다.<sup>3)</sup> 이 외에 등장인물에 대한 원형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있으나 “<비밀의 숲>을 계기로 TV드라마의 미학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연구를 기대한다”<sup>4)</sup>는 칼럼니스트의 지적을 충족하지는 못한 수준이다.<sup>5)</sup>

본 논문은 <비밀의 숲>에 대한 텍스트 내적 미학과 텍스트 외적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비밀의 숲>이 한국

2) 『<비밀의 숲>, 뉴욕타임즈 선정 국제 TV드라마 TOP10에 올라』, 『조선일보』, 2017.12.8.

3) 이정희, 『<비밀의 숲>이 2017 최고의 드라마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오마이뉴스』, 2017.12.12; 하성태, 『한드 품격 높인 <비밀의 숲>, 마지막 회 대사가 압권』, 『오마이뉴스』, 2017.6.2; 이소라, 『<비밀의 숲>작가 보편적 검사 그리고 싶었다』, 『한국일보』, 2017.8.8.

4) 윤태진, 『<비밀의 숲>이 알려준 비밀들』, 『경향신문』, 2017.8.6.

5) 임훈·주효진, 『케이블 TV 법정드라마 등장인물의 원형분석-〈굿와이프〉와 〈비밀의 숲〉을 대상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4호, 2017, 263-287쪽.

드라마사상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 높은 ‘범죄서사(Crime Fiction)’<sup>6)</sup>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범죄서사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중대한 범죄사건을 핵심에 두고 범죄이야기와 탐색이야기가 치밀하게 얽혀 긴장감을 유발하는 장르를 문학사회학적으로 총괄하는 개념이다. 근대소설에서 유래한 추리서사(Mystery Fiction)는 탐정소설, 미스터리소설, 하드보일드소설, 서스펜스소설 등과 같이 다양한 하위 장르로 분화됐지만, 영웅적인 탐정에 의해 범죄이야기가 밝혀지는 기계적인 서사구조를 통해 근대 부르주아적 법과 질서를 옹호하는 이분법적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동일 범주로 묶여진다. 이후 점차 죽음을 물신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범죄성과 폭력성이 복잡하게 전화한 현대사회에 이르러 더 이상 기계적인 서사구조와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고수할 수 없게 되자 소설과 영화 등을 중심으로 추리서사는 다양한 주제와 구조, 기법으로 전유되고 변주되며 범위가 확장됐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추리서사라는 협소한 개념에서 벗어나 범죄서사라는 넓은 개념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범죄서사는 하위 장르간의 침투성과 혼종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다양한 추리물의 범주를 문학사적으로 총괄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의 폭력성과 모순적 균열에서 출현하는 미스터리한 범죄를 사회적으로 분석하는 관점을 포괄한다.<sup>7)</sup>

〈비밀의 숲〉은 은폐와 탐색의 추리드라마라는 외피에 한국사회의 동시대적 부패상을 폭로하는 사회파드라마를 절묘하게 결합한 완성도 높

6) 일반적으로 ‘Crime Fiction’을 범죄소설로 번역하고 있으나, TV드라마를 분석하는 본 논문에서는 소설과 드라마라는 매체적 장르에 대한 혼동의 우려가 있어 ‘범죄서사’로 대체하고자 한다.

7) Jon Thompson, *Fiction, Crime and Empire: Clues to Modernity and Postmodernism*,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3; 에르네스트 만텔, 『즐거운 살인, 범죄소설의 사회사』, 이동연 옮김, 이후, 2001; 존 스택스, 『범죄소설』, 나영균·전수용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은 범죄서사이다. 따라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과 범인을 추적하는 탐정 사이에 쫓고 쫓기는 게임의 플롯으로 구성된 추리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은 미스터리한 범죄사건의 비밀을 풀어가는 지적 유희를 맛보게 된다. 그러나 추리드라마는 이내 중대한 범죄사건의 발생 동기가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한국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맞닿아 있음을 밝히는 사회파드라마로 전환되면서 시청자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현실의 숨겨진 비밀을 파악하고 불안과 환멸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비밀의 숲〉은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밝혀내기 위해 추리를 활용하는 일본의 사회파추리와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물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범인에 대한 동정을 유발하고 범죄의 책임을 사회로 돌리는 사회파추리<sup>8)</sup>와 달리 〈비밀의 숲〉은 시청자들에게 중대 범죄에 가담한 자들과 부패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갖게 만들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유하는 시민으로서의 각성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범죄서사는 수용자들에게 고도의 집중력과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영상매체라는 동일한 조건을 지닌 영화와 TV드라마를 비교하면, 수용자들의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참여가 가능한 영화에서 범죄서사는 이미 독립된 장르로 자리 잡았지만, TV드라마에서는 좀처럼 다루기 어려운 장르로 여겨왔다. 극장이라는 제의적 시공간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들의 경우 화면에 적극적인 응시(gaze)하지만, 가정이라는 일상적 시공간에서 TV드라마를 시청하는 수용자들은 소극적인 흘려보기(glance)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의 미국 드라마에서는 이런 한계를 벗어나 소극적인 시청자들의 시선을 전취하기 위해 한 편

8)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일본 추리소설 사전』, 학고방, 2014, 244-245쪽; 김희정, 『미야베 미유키의 『이유』론-소재로서의 버블경제와 사회파추리소설』,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3-22쪽.

의 영화로 담아내기에는 거대한 플롯과 인물을 TV드라마에 이식하여 밀도감 높은 플롯과 새로운 인물 유형을 동원하는 공세적인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한국 드라마에서는 척박한 제작여건으로 인해 구조적 완결성과 장르적 다양성, 창조적 실험을 포기하고 이미 검증된 소설이나 웹툰, 혹은 외국 드라마 등을 각색하거나 리메이크하는 식의 관행을 유지해왔으며, 도식적 플롯과 전형적 인물을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방어 전략으로 대응해왔다.<sup>9)</sup>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한국 드라마에서도 범박한 의미의 범죄서사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 드라마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그 원인으로 먼저, IPTV와 케이블 TV 등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확산을 통해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드라마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논리적이고 건조한 범죄서사를 즐기는 젊은 시청자들의 취향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TV드라마도 수용자들의 취향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10)</sup> 또한, 신자유주의의 급격한 유입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각종 인명사고가 잇따르는 위험사회로 진입하는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부패한 현실과 혼란한 시국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분노를 반영하는 사회 비판적인 드라마가 등장하기 시작했다.<sup>11)</sup> 그리하여 2000년대 이후 한국 드라마는 역사, 의학, 법정, 수사, 정치 등 다양한 제제 개발을 시도했고, 동시대의 담론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지금-여기-우리’에게 필요한 화두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9) 김봉석, 『왜 미국 드라마 열풍인가』, 『창작과 비평』 제136호, 창작과비평사, 2007, 411-416쪽.

10) 박노현, 『텔레비전 드라마와 시민(성)－은유로서의 시민, 視民에서 市民으로』, 『서강인문논총』 제35집, 2012, 211-212쪽.

11) 이충진, 『세월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철학적 물음』, 이학사, 2015; 최원, 『국가란 무엇인가』, 『황해문화』, 2016. 여름; 박상현, 『대중의 분노를 업고 법정드라마 붐물』, 『조선일보』, 2017.3.13.

전통적인 수사드라마에서 벗어나 법의학자, 사이버수사대, 해커 등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범죄서사가 등장했다.<sup>12)</sup>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사회문제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는 범죄서사는 다수가 존재하지만, <비밀의 숲>과 같이 추리드라마와 사회파드라마를 밀도 있게 결합하여 동시대의 사회적 화두와 관련된 중대 사건을 완성도 높은 텍스트로 빚어낸 범죄서사는 그리 많지 않다. <비밀의 숲>과 가장 유사한 드라마로 <싸인>과 <유령>, <추적자> 등을 꼽을 수 있지만, 법정과 의학, 정치 등 제재적 장르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연출력 부족과 서사적 결합에 대한 비판에 휘말리거나, 부패한 기득권층의 악에 대한 응징을 곧바로 사회정의 실현의 메시지로 등치시키는 이분법적인 가치관에 매몰됐다.<sup>13)</sup> 물론 이는 한국 드라마의 열악한 제작여건에서 완성도 높은 범죄서사가 정착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밀의 숲>이 “한국 드라마는 통상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는 통념을 깨고 2017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국제 TV드라마 TOP 10에 입선됐던 요인 역시 넷플릭스에서 지원한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었던 제작 환경에 있다 하겠다.

요약하면, <비밀의 숲>은 한국 드라마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

12) 김유미, 『2000년대 텔레비전 추리드라마의 특징—심리적 요소의 활용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61집, 2010, 191-224쪽; 윤석진·박상완·권양현, 『한국 텔레비전 장르 드라마 연구』, 『건지인문학』 제18집, 2017, 165-173쪽.

13) 권양현, 『텔레비전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캐릭터 유형의 변화 양상 연구—<싸인>, <유령>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42집, 2013, 252-253쪽; 『싸인 마지막회, 그들은 무슨 싸인을 남겼나?』 『미디어스』, 2011.3.11; 신주진, 『TV드라마 <추적자>의 정치학과 이데올로기』, 『대중서사연구』 제23권 제2호, 2017, 256-291쪽; 『홀대받던 ‘추적자’, 시청률 1위 우뚝…비결은?』, 『일간스포츠』, 2012.7.11; 『<추적자>, 드라마를 넘어선 시대의 전설』, 『오마이뉴스』, 2012.7.11.

로 새로운 유형의 인물과 밀도감 높은 플롯구성을 통해 첫 회부터 마지막 16회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에 걸쳐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응시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범죄서사이다. <비밀의 숲>은 추리드라마라는 외피에 사회파드라마를 절묘하게 결합한 범죄서사이므로, 먼저 2장에서 추리드라마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감정이 제거된 검사’라는 새로운 인물 유형과 탐색이야기와 범죄이야기가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 탄탄한 플롯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결말을 한 치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인 몰입도와 서사적 긴장감을 높여가는 텍스트의 내적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3장에서는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부패권력과 거대악의 실체를 폭로하는 동시에 부패권력에 대한 동조로 범죄적 폐단이 재생산되는 모순적 실상을 고발하는 사회파드라마로서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모순에 대한 정치적 사유를 통해 정의구현의 실현을 바라는 수용자들의 원망(願望)과 시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대지평을 분석할 것이다.

## 2. 부패사회를 해부하는 도덕이성과 기표적 살인에 의한 설계

### 2-1. 소시오패스적인 탐정과 기표적 살인

일반 드라마와 달리 범죄서사 드라마는 미스터리한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수사과정에 시청자들을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정보를 해석하고 텍스트의 다층적인 의미를 적극 생산할 수 있도록 서사적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범죄서사는 형식적인 공식(formula)을 반복하는 근대 초기의 추리서사와 변별된다.

은폐와 탐색이라는 범죄이야기와 탐색이야기의 이중구조로 짜인 추리서사는 마치 음극과 양극의 두 극 사이에 형성된 전류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와 같이 형식적인 공식에 따라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추리기계에 비유된다. 따라서 탐정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에 동참한 독자들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흘리는 잘못된 정보나 정보의 지연을 통해 서사적 긴장감을 경험할지라도 중국에는 작가가 설계한 의미와 해답을 확인하는 차원에 머무르게 된다.<sup>14)</sup> 반면, 범죄서사로서의 <비밀의 숲>에서는 범죄이야기와 탐색이야기의 이중구조를 차용하면서도 은폐와 탐색의 공식을 위반하는 설계이야기가 겹쳐지면서 텍스트의 의미가 확장되는 다층구조를 이룬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복선과 혼선으로 전진하는 중층적인 서사를 따라가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미망을 해석하기 위해 첫 회부터 마지막 회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비밀의 숲>은 시청자로 하여금 단순한 텍스트 소비자를 넘어서 중층적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텍스트의 의미를 적극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작가적 텍스트에 해당한다.<sup>15)</sup>

<비밀의 숲>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특이한 범죄서사이다. 우선, 지금까지 추리서사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탐정과 조력자가 등장한다. 추리서사의 공식은 살인현장이 먼저 제시된 다음 이어 탐정이 살인현장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탐색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나 <비밀의 숲>은 탐정에 해당하는 황시목이 학창시절 뇌선엽 제거수술로 공감능력이 결여된 사연을 먼저 소개하며 이런 공식을 위반한다. 감정이 제거된 황시목은 ‘독야청청’, ‘황프로’, ‘찢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냉혈한’, ‘서부지

14) T. 토도로프, 『산문의 시학』, 신동욱 옮김, 문예출판사, 1992, 77-81쪽; 존 스캐스, 『범죄소설』, 나영균·전수용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61쪽; 토마 나르스작, 『추리소설의 논리』, 김중현 옮김, 예림기획, 245-251쪽.

15) 존 스캐스, 『범죄소설』, 나영균·전수용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118-119쪽.

검의 최고 브레인 등의 별칭으로 통할만큼 인지능력이 월등한 인물이다. 의학적으로 공감능력이 결여되고 인지능력이 과도하게 발달한 사람들을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지닌 소시오패스(sociopath)로 규정하는데, 이들은 감정이 담긴 사회적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대신 전략적이고 지적이고 대담하면서 신중한 편이다.<sup>16)</sup> 영국 드라마 〈셜록(Sherlock)〉<sup>17)</sup>의 주인공 홈즈가 스스로 ‘고기능 소시오패스’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소시오패스적인 탐정은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는 감정과잉의 범죄사회에 연루되지 않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마치 감정을 배제한 채 날카로운 메스로 병든 부위를 제거하여 건강한 신체로 만드는 냉철한 외과 의사와도 같이 소시오패스적인 탐정은 오로지 단서에 의존하여 범죄사회의 부패상을 낱알이 해부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바로 잡고 도덕적인 규범을 부여할 수 있는 도덕이성을 상징한다.

이런 점에서 황시목은 근대 초기 추리서사에서 형상화된 천재적 탐정과 유사한 면모를 지닌다. 그러나 수집가와 산책자이며 바이올린과 와인, 코카인을 즐기는 개성 강한 셜록 홈즈와 달리 황시목은 별다른 취미도 관심사도 없고 서부지검이 내려다보이는 삭막한 아파트에서 가족도 없이 홀로 지내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수사에만 집착하는 일중독자이다. 수사과정에서 만난 한여진과 공조관계를 이루며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지만 동료로서의 관계를 유지할 뿐 애정전선은 애초부터 차단되고, 후배 검사 영은수가 보내는 애뜻한 시선도 무덤덤하게 외면한다. 물론 고전적 추리서사에서도 연애담이 플롯으로 통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황시목은 냉철하고 고독한 하드보일드의 탐정과 유

16) M. E. 토머스, 『나, 소시오패스-차가운 심장과 치밀한 수완으로 세상을 지배한다』, 김학영 옮김, 푸른숲, 2014, 17-22쪽.

17) 〈셜록(Sherlock)〉은 영국 BBC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2010년 7월 25일 처음 방송되어 1주일에 한 편씩 총 3편이 방송됐고 2012년, 2014년, 2017년에 시즌 4까지 방영됐다.

사하면서도 결코 비정하지도 않고 남성성을 과시하는 거친 터프가이도 아니며 여성혐오적인 성향도 없다.<sup>18)</sup> 이처럼 소시오패스이자 내부고발자인 황시목은 사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다양하게 진화를 거듭해 온 추리서사의 탐정 목록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부지검 평검사 황시목은 땀나무를 의미하는 ‘시목(柴木)’이란 이름처럼 장막에 가려진 ‘비밀의 숲’의 부정의와 모순을 투명하게 밝히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감정을 제거하고 오직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 인지능력이 극대화된 황시목은 학연과 지연, 혈연으로 얽힌 소수의 특권 집단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 부패한 한국사회의 난맥상을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전에 <싸인>과 <유령>, <추적자> 등의 드라마에서 부당한 권력과 부패한 사회시스템에 맞서 싸웠던 영웅적인 인물들은 대부분 치명적인 위협과 관련이 있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로 분노와 절망의 감정에서 정의로운 복수를 꿈꾸었다. 이와 달리 황시목은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철저히 실증적인 판단능력과 기계적인 인지능력에 의지하여 부패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파헤쳐 공공선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따라서 거대한 부패사회를 해부하기 위해 외롭게 투쟁하는 황시목은 부패한 한국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도덕이성이 인물로 체화된 기능적 장치이자 모험서사의 영웅적 인물에 해당한다.

한편, 황시목과 콤피를 이루는 한여진은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경찰이다. 여진(如眞)이란 이름이 상징하듯 풍부한 감성으로 진정성 있게 주변인물을 보살핀다. 용의자는 물론 동료 검사들에게

18) 도로서 L. 세이어스, 『탐정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박현주 옮김, 북스피어, 2013, 74-81쪽; 김용언, 『범죄소설, 그 기원과 매혹』, 강, 2012, 184-235쪽.

도 냉정한 태도로 일관하는 황시목과 달리 한여진은 살해된 박무성의 노모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다거나 박무성의 장례식에 문상을 가고 그의 아들을 위로하는 등 넉넉한 품성과 상식적인 인정을 지닌 온정주의자이다. 냉철한 황시목과 온정적인 한여진은 설록 흠즈와 왓슨의 관계와 같이 상호보완적이다. 그러나 추리서사에 술하게 등장하는 왓슨을 비롯해 탐정의 조력자이자 사건 기록자로 머물렀던 인물<sup>19)</sup>들과 달리, 한여진은 용산경찰서 형사과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범인을 추적하거나 범죄 현장을 수색하는 작업에도 활약상을 펼치는 경찰대 출신의 실력자이며, 특임수사팀에 합류하여 황시목과 함께 검경 합동의 조직적인 수사를 유능하게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비밀의 숲〉은 영웅적인 탐정에 의존하는 고전적 추리서사를 넘어서 경찰과 검찰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아 조직적 범죄를 소탕하는 경찰수사물과도 유사성을 지닌다.<sup>20)</sup>

〈비밀의 숲〉의 또 다른 특성은 탐색과 은폐라는 게임의 플롯을 기획한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탐색이야기의 핵심인물이 황시목과 한여진이라면, 범죄이야기의 핵심인물은 이창준이다. 황시목은 처음부터 이창준 수석 검사를 범인으로 의심하며 수사를 벌이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창준의 정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고 거대한 숲속의 미로에서 헤매듯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 이창준은 범죄이야기의 단순한 핵심인물이 아니라 범죄이야기와 탐색이야기를 기획한 설계자이자 자신이 세운 설계에 따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비극적 인물이다. Volger의 인물원형에 따르면 황시목이 부패한 한국사회를 해부하고 해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이성을 실천하는 영웅이라면, 이창준은 황시목의 도덕

19) 도로시 L. 세이어스, 『탐정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박현주 옮김, 북스피어, 2013, 20-27쪽.

20) 에르네스트 만델, 『즐거운 살인, 범죄소설의 사회사』, 이동연 옮김, 이후, 2001, 99-109쪽.

이성을 활용하여 권력의 카르텔로 얼룩진 한국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폭로하는 동시에 스스로 산화의 길을 선택한 정신적 스승에 해당한다.<sup>21)</sup> 결국 이창준과 황시목이 벌이는 은폐와 탐색의 플롯은 이창준이 부패한 범죄사회를 폭로하기 위해 은밀하게 기획한 설계도이다. 따라서 <비밀의 숲>은 범죄이야기와 탐색이야기라는 추리서사의 이중구조에 새로운 층위의 설계이야기가 겹쳐지는 중층구조를 이루며, 이창준이 폭로하는 동시대 사회의 부패상을 담은 사회파드라마에 황시목과 이창준이 벌이는 탐색과 은폐의 플롯이라는 추리드라마의 외피를 입힌 액자구조를 이룬다. 이 액자구조는 비밀의 숲처럼 가려진 부패한 검찰 나아가 한국사회의 동시대적 부패상을 시청자들에게 낱낱이 폭로하겠다는 이창준의 설계 의도를 반영하는 서사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다른 특성은, 추리드라마와 사회파드라마의 접점에 해당하는 연쇄살인이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이창준이 범죄사회의 부패상을 폭로하려는 거대한 기획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사건이라는 점에 있다. 추리서사에서 범죄는 주로 원한에 얽힌 살인사건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잔인하게 살해된 시체는 범인을 탐색하는 결정적 단서로 기능한다. 그러나 <비밀의 숲>에 등장하는 살인이나 훼손된 신체는 여러 의미를 내포한 단서의 저장소(repository of clues)로 활용된다. 길 플레인(Gill Plain)에 따르면, 잔혹한 살인사건이나 피로 얼룩진 잔인한 시체를 부각시키지 않으면서도 범죄가 난무하는 폭력적인 사회 상황을 그려내기 위해 활용하는 기법을 ‘기표로서의 살인’ 혹은 ‘기표로서의 시체(a corpse-as-signifier)’라고 한다. 애거사 크리스티가 주로 활용했던 이 기법은 범죄 자체보다 사회적 행동수칙의 위반과 사회적 반응

21) 임훈·주효진, 『케이블 TV 법정드라마 등장인물의 원형분석-〈굿바이프〉와 〈비밀의 숲〉을 대상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4호, 2017, 277-279쪽.

에 주목하는 현대소설에서 이르러 절단된 시체나 잔혹한 살인은 중대한 범죄의 서사적 인과관계에 사회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단서풀이의 형식으로 발전했다.<sup>22)</sup> 이런 주장을 <비밀의 숲>에 접목시켜 보면, 박무성의 시체와 김가영의 훼손된 신체 등은 개인적 원한을 위한 복수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탐색이야기와 범죄이야기라는 이중구조에 부패상을 폭로하는 설계이야기를 추가하기 위해, 바꿔 말하면 사회파드라마와 추리드라마를 접목하기 위해 동원된 기표로서의 살인과 시체에 해당한다.

## 2-2. 기표적 살인에 의한 설계와 도덕이성에 의한 해부

황시목과 이창준의 대결구도는 크게 박무성의 살해사건, 김가영의 상해사건, 영은수의 살해사건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 세 사건을 중심으로 1막(1~4화), 2막(5~13화), 3막(13~16화)으로 나눠 접근하고자 한다. 1막에서부터 3막에 이르기까지 대결구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자는 단연 이창준이다. 현실적으로 상명하복이 강한 검찰조직 내에서 수석검사와 평검사 사이의 정면대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비밀의 숲>의 재현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어떤 권력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팩트(fact)'에 근거하여 범죄를 해부하는 소시오패스적인 황시목이기에 가능한 설정으로 수용한다.

<비밀의 숲>은 서두에서 일련의 범죄를 기획한 설계자가 이창준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여 탐색이야기와 범죄이야기의 이중구조에 설계이야기가 겹쳐지는 중층구조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탐색이야기는 살인을 사주한

---

22) Gill Plain, *Twentieth-century crime fiction: gender, sexuality and the body*, Edinburgh & Chicago: Fitzroy Dearborn Publishers, 2001, pp.31-43.

범인이 과연 이창준인가(whodunit), 만약 이창준이 범인이라면 ‘비밀의 숲’이라는 거대한 기획을 설계한 이유는 무엇인가(whydunit), 또 것처럼 엄청난 설계를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실행할 수 있었는가(howdunit)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중첩된다. 여기에 복선과 혼선으로 전진하는 서사전략과 다양한 에피소드들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등장인물 간의 크고 작은 대결구도를 통해 매회에 걸쳐 불안정-안정-불안정의 도식을 유지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응시(glaze)를 꾸준히 확보하기 위한 텍스트 분절의 전략으로 활용된다.<sup>23)</sup> 때문에 서두에서 황시목과 이창준의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이창준이 거대한 ‘비밀의 숲’의 설계자일 가능성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대결구도를 활용한 분절의 전략을 통해 첫 회에서부터 마지막 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서사적 긴장감을 유지시켜 시청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첫 번째 대결구도인 제1막은 검사들에게 접대와 뇌물, 성상납을 제공하고 각종 이권을 챙겼던 검찰 스폰서 박무성의 살해사건에서 시작된다. 황시목은 다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이창준이 범인이라는 가설을 펼친다. 즉, 횡령죄로 부도에 처한 박무성이 죽기 직전 “상납 증거를 폭로해 이창준을 생매장하겠다”고 협박한 점, 제3의 인물을 동원해 잡음 없이 청부살인을 실행할 수 있는 권력자라는 점, 전과기록이 있는 AS기사 강진섭을 사주하여 박무성 살인사건이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보복인 것처럼 위장술을 쓸 수 있는 지략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창준은 “찢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황시목이 찢르기 전에 먼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던 죽기 직전 박무성의 청탁을 근거로 부패검사들을 제압하기 위해 황시목이 벌인 범행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빈약한 반박 논리로 궁지에 몰리자 이창준은 강기사의 자살사건을

23) 박노현, 『드라마, 시학을 만나다』, 휴머니스트, 2009, 27-32쪽; 250-255쪽.

언론에 공개한 황시목과 일종의 거래를 제안한다. 즉, 강기사 사건을 언론에 공개한 내부고발로 파면의 위기에 처한 황시목에게 박무성 살해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묵인하는 대가로 형사3부장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이다. 그러나 어떤 권력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는 황시목은 이창준이 박무성의 성상납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꺼내들며 정면대결을 선포한다. 이를 통해 이창준이 설계자일 확률은 더 높아졌지만, 웃음기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살해 정황을 재연한다거나 울며 매달리는 강기사의 부인을 냉정하게 다그치는 황시목을 목격한 한여진조차 과연 누가 박무성의 살인사건을 설계한 용의자인지 선불리 판가름하기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황시목과 이창준이 벌이는 게임의 플롯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황시목이 승리한다 해도 내부고발자로 머물 것이며, 범죄자인 동시에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로서 이중화된 기능을 담당하는 이창준이 승리한다 해도 검사로서의 자기부정을 해야 하고 패배할 경우 검찰을 비롯해 한국사회 전반의 환멸적 부패상을 폭로하는 사회적 위협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전 추리서사에서 탐정은 사회 내부적 위협을 감시하고 지배질서를 회복하는 인물로 구현된다.<sup>24)</sup> 반면, 〈비밀의 숲〉에서 황시목과 이창준은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저항적 인물들이기에 이처럼 치명적 위험을 감수하며 지배질서의 부패상을 전경화 하는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다. 황시목과 이창준이 벌이는 위험한 게임은 황시목의 TV 시사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더욱더 위험한 단계로 치달는다. TV에 출연한 황시목은 전 국민을 향해 박무성 살해사건은 부실수사이고 강기사 자살사건은 검경 합동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과오였다는 점 등을 공표하고, 2달 내에 진범을 잡지 않으면 스스로 검사에서 물러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선언한 것이다.

24) 존 스탭스, 『범죄소설』, 나영균·전수용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72-82쪽.

TV 출연을 기점으로 박무성 살인사건을 사주한 범인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던 whodunit에, 이창준은 왜 이 거대한 설계를 기획했는가를 밝히는 whydunit이 겹쳐진다. 황시목이 박무성 살해사건의 실상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비리를 감추기 위해 연출된 것임을 우회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박무성 살해사건의 이면에 가려진 한조그룹 회장 이윤범과 전 법무부장관 영일재가 전면에 부상한다. 이윤범은 검사 사위 이창준의 권위를 이용하여 거대한 부와 권력을 축적한 탐욕자이다. 반면, 영일재는 검찰 내 막강한 학연세력인 서울대 교수이자 청렴결백한 법관으로 3년 전 '8억 뇌물사건'에 휘말린 후 명예 회복의 기회를 노리는 인물이다. 황시목의 대국민 선언으로 자신의 과거가 폭로될 수 있다는 위기에 처한 이윤범은 이창준을 앞세워 황시목에 대한 선제공격을 시도한다.

다른 한편, 영일재와 이윤범의 뇌물사건이 드러남에 따라 아버지 영일재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검사가 된 영은수가 서사의 표면에 전경화된다. 뇌물사건에 이창준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영은수는 이창준을 향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한편 황시목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감정이 없는 황시목은 영은수를 박무성 살해사건의 가담자로 의심한다. 의심할 만한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박무성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점, 강기사의 전과기록을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검찰 내 민원실 전화를 이용해 박무성과 통화했다는 점, 무엇보다 박무성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영은수라는 점 등을 단서로 영은수가 박무성의 살해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황시목과 이창준의 대결구도의 2막은 성상납 여성 김가영의 상해사건에서 시작된다. 박무성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김가영의 훼손된 신체 역시 범죄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리기 위해 활용된 기표로서의 살인이자 단서의 저장소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시체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잔혹

하게 난자된 신체를 박무성의 집 화장실에 매달아 전시했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는 박무성의 죽음과 관련성이 깊다는 점, 김가영이 깨어날 경우 성상납에 관련된 결정적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위협하려는 경고에 해당한다. 범죄서사에서 경고는 종종 증가하는 범죄에 위협받는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개인의 안전을 유지하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불가피한 원한에 대해 응징을 가하는 복수자가 스스로 운명을 앞당기는 복수비극에서 경고는 자신의 결백을 표방하는 의미를 지닌다.<sup>25)</sup>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창준은 재벌사위로 검찰비리에서 예외적인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무성의 살해사건과 김가영의 상해사건이라는 기표적 살인을 통해 경고를 보내는 것은 자신의 결백을 표방하는 동시에 뇌물과 성상납으로 얼룩진 검찰 내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읽혀진다.

이런 경고의 의미를 파악한 황시목은 김가영이 미성년자(이를 위장하기 위해 처음에는 권민아라는 가짜 주민등록증을 사용함)라는 점과 박무성이 매달 김가영에게 400~500만원씩 송금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인물을 탐색하여 ‘박무성이 죽기를 바라는 자’, ‘김가영이 사라지기 바라는 성상납에 연루된 자’를 분류하여 서동재, 이윤범, 용산경찰서장 김우균, 이창준으로 압축한다. 이후 ‘검사 사위 이창준의 지위를 활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돈과 권력을 탐하는 악의 근원’이라는 영일재의 결정적인 증언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윤범을 후보자로 지목한다. 한편, 김가영이 설악리조트에 머물던 이창준의 방에 들어갔다 나온 CCTV 확보 등을 근거로 이창준을 범인으로 집요하게 추궁하지만, 이창준은 박무성이 김가영을 ‘벨(누르면 언제든지 나온다는 의미)’이라고

25) Stephen Knight, *Form and Ideology in Crime Fiction*, Basingstoke Macmillan, 1980, pp.10-13.

부른다는 점을 들어 함정임을 직감하고 돌려보냈다고 결백을 주장한다. 이처럼 황시목은 이창준을 의심하고, 영일재는 이윤범을 지목하고, 이창준은 서동재와 윤세형 과장, 영은수 등을 이용하여 황시목에 대한 반격을 가하는 등 등장인물들이 서로서로 의심하는 에피소드가 겹치며 크고 작은 미스터리가 가중되고, 이에 따라 시청자들로 하여금 모든 등장인물이 거대한 비밀의 숲에서 일어나는 중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그리하여 시청자들은 회가 거듭할수록 황시목과 이창준의 대결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지, 이 거대한 설계를 기획한 자의 동기와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서사의 종결은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해 궁금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다른 한편, 이창준과 황시목의 대결구도는 특검팀 구성을 계기로 전면전으로 전화된다. 박무성 살해사건과 김가영 상해사건을 계기로 검찰을 향한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이창준은 검사들의 비리에 대한 내사를 지시하는 한편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팀 결성을 지시한 것이다. 특별검사팀의 수장이 된 황시목은 한여진을 비롯한 수사과 윤세형 과장, 시민운동가 김정분 등과 함께 검찰 스폰서 박무성에 대한 재조사는 물론 이윤범의 축적과정과 재산상속에서 빚어진 각종 비리, 영일재 뇌물사건의 진상, 서동재를 비롯한 서부지검 검사들의 뇌물수수와 정치인들과의 검은 거래, 용산경찰서장의 성상납 비리 등 전방위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여 한국사회의 부패상을 낱알이 밝혀낸다. 특히 이윤범이 재산증여 과정에서 주식조작과 분식회계의 비리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영일재를 제거하기 위해 8억의 뇌물수수 혐의를 씌워 결국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

영은수의 살해사건에서 시작되는 3막은 이창준과 황시목 사이에 위협

한 대결구도의 대단원에 해당한다. 박무성 살해사건과 김가영 상해사건의 경우 단독범을 추정했던 반면, 영은수 살해사건에서는 한조그룹 회장 이윤범의 사주를 받은 우병준 실장과 김가영 상해사건의 범인으로 부상한 수사부 윤세원 과장이 동시에 범인으로 지목된다. 김가영이 증언한 '07과 관련된 자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윤과장이 범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영은수의 살해범은 이윤범의 사주를 받은 우실장으로 확정된다. 영은수의 살해는 아버지 영일재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던 초기부터 이미 예견됐으나, 결말 부분에서 우실장과 윤과장의 에피소드를 복선과 혼선의 전략으로 활용하여 서사적 긴장감을 유지했다.

그러나 영은수 살해사건 역시 숨겨진 다른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기묘적 살인에 해당한다. 영은수의 죽음은 이윤범의 재산증여 과정에서 주식조작과 분식회계에 관련된 파일을 확보하고 있는 영일재를 향한 이윤범의 응징이며, 장례식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증거물을 빼돌리기 위한 술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예견됐던 영은수의 살해사건은 누가 죽였는가를 밝히는 whodunit이 아니라 살해이유를 밝히는 whydunit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윤범의 범행을 간파한 이창준은 영은수의 장례식장에서 영일재로부터 “니가 내 딸을 죽였다”는 호통을 들은 이후 이윤범에 향한 복수의 마무리를 단행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영은수의 살해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과장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남에 따라 이창준은 이 거대한 설계를 어떻게, 왜 실행했는지 전면화 되면서 whydunit과 howdunit이 겹쳐진다. 자동차부품회사의 부실로 인해 유치원생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아픔을 지닌 윤과장은 근본 원인이 검사의 비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파악하고 호시탐탐 복수를 노려왔던 개인적 복수자이다. 이창준은 윤과장의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검찰

개혁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박무성의 살해사건과 김가영의 상해사건을 사주했고, 부패의 온상인 한조그룹 회장 이윤범의 실체를 폭로할 기획을 설계했던 것이다. 황시목은 윤과장의 증언, 서동재가 이윤범과 이창준 사이를 오가며 물어다준 정보들, 공항에서 윤과장이 보여준 동선에 관한 CCTV 등을 증거로 삼아 이창준을 설계자로 최종 지목한다.

이로써 황시목과 이창준 사이에 벌인 기나긴 게임의 플롯은 끝이 났다. 탐정과 범인 사이에 탐색과 은폐의 대결구도에 초점을 두는 고전 추리서사에서는 탐정이 승리하는 순간 곧 무질서와 혼란에 빠진 사회질서가 평온을 회복하는 폐쇄적 플롯을 지향한다. 인과적 서사는 필연성과 개연성에 기반을 둔 논리적 구성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추리드라마의 외피를 입은 사회파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황시목의 승리와 이창준의 패배는 곧바로 사회질서의 회복으로 환치되지 않는다. 이창준의 자살로 황시목의 승리는 확고해졌지만, 황시목을 비롯한 ‘비밀의 숲’에 거주하는 검찰들은 물론 시청자들에게 이창준이 치른 비극적 희생의 가치를 계승해야 할 무거운 과제가 남겨진다. 무소불위의 막강한 위력을 휘둘렀던 한조그룹 회장 이윤범은 검찰에 소환됐지만 그 후세들은 여전히 건재하며, 잠시 숙연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서동재 검사 역시 처세의 달인이자 비리검사로 회귀한다. 이런 점에서 〈비밀의 숲〉은 폐쇄적인 게임의 플롯에 머물지 않고 지금 여기의 부패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즉 도덕적 범질서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거시적인 플롯으로 확장된다.<sup>26)</sup>

26) 김용수, 『드라마 분석 방법론』, 집문당, 2014, 104-134쪽 참조.

### 3. 부패사회에 대한 환멸적 고발과 정의구현이라는 환상

#### 3-1. '비밀의 숲'의 은유적 전이와 부패사회에 대한 환멸적 고발

TV드라마는 언제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메타포이다. 화면을 통해 형상화 하고 있는 체계나 생활세계와 현재적 동일성의 일치 여부와 무관하게 TV드라마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화두로 삼기 때문이다.<sup>27)</sup> 레이먼드 윌리엄스에 따르면, TV드라마는 지금 여기의 시공간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실제적인 생활 감각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심층의 정서구조(the structure of feeling)를 반영한다. 정서구조는 한 세대나 한 시대에서 생동적이고 상호 관련적인 연속성 속에 놓여 있는 현재적인 실천적 의식이자 사회적 체험을 의미한다.<sup>28)</sup>

이런 점에서 <비밀의 숲>에서 재현된 공간이 사법농단으로 표상되는 검찰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드라마가 방영된 시기(2017.6.10.~7.30.)는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이 됐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던 역사적 전환기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거대한 변화가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찬바람 부는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탄핵과 적폐청산을 부르짖은 결과물이자, 결코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검찰의 직업적 소명의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비밀의 숲>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수용자 대부분이 가질 법한 무소불위의

27) 박노현, 『드라마, 시학을 만나다』, 휴머니스트, 2009, 204-206쪽.

28) 레이먼드 윌리엄스, 『이념과 문학』, 이일환 역, 문학과지성사, 1988, 160-169쪽.

괴물로 변해버린 검찰에 더 이상 자발적인 자정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환멸적 정서와 하루 빨리 적폐청산이 이뤄져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원망(願望)이 반영된 드라마이다.

문학사회학적으로 보면, 예술작품은 사회의 반영물이다. 그러나 문학사회학자들은 예술작품은 단순히 사회의 표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거나 일반적인 사회현실을 매개하는 방식으로 담아낸다고 주장한다. 골드만(L. Goldman)은 상징과 표상으로 드러나는 예술의 매개 방식에 주목하여 당대의 사회현실을 대표하는 실례에 대응하는 ‘전형성’이라는 개념을 개발하여 상동관계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벤야민(W. Benjamin)은 상동관계이론이 전형성에 집착한 나머지 사회에 응시하는 다양한 관점을 묵과했다고 비판하며, ‘조용’이란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 냈다. 조용이론은 탐정소설에 등장하는 탐정, 도회지의 군중 속에서 고독감을 느끼는 시인, 시가지의 한가로이 거니는 산책자 등과 같이 사회현실에 대해 유사성이나 유추, 혹은 대치된 연관관계 등 다양한 응시를 인정한 것이다.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지적한대로 상동관계와 조용관계의 대비는 예술작품에 그려진 사회현실에 대한 관점을 단순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sup>2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사회의 현실논리에 충실한 전형적인 인물군과 이들을 비판적으로 응시하는 이창준과 황시목, 한여진 등을 고찰하는 유용한 틀로 활용할 수 있다.

‘비밀의 숲’으로 재현된 공간은 일차적으로 일반인에게는 철저하게 비밀에 가려진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숲과 같이 패쇄적이고 사명하복의 조직 논리에 충실한 검찰에 대한 은유이다. 나아가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을 이용하여 무소불위의 자본권력을 축적한 한조그룹 회장 이윤범으로 전형화 되는 부패한 대한민국으로 확장된다. 또한

29) 레이먼드 윌리엄스, 『이념과 문학』, 이일환 역, 문학과지성사, 1988, 126-134쪽.

비밀리에 검찰과 이윤범의 부패상을 폭로하기 위한 거대한 기획을 세우고 황시목과 위협한 게임을 벌이는 이창준의 시각에서 ‘비밀의 숲’은 부패사회에 대한 환멸적 고발의 설계도로 전이된다. 이창준이 만든 위협한 설계 안에서 냉철하게 부패사회를 해부해나가는 황시목이 조용하는 ‘비밀의 숲’은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패와 비리의 거대한 정글이자 오로지 이성애 의지하여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하고 공정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도덕이성의 실천장으로 대치된다. 일차적으로 ‘비밀의 숲’이란 공간은 밀폐된 환경에서 은밀하게 발생한 범죄를 조명하는 ‘전원주택 미스터리’나 ‘잠긴 방 미스터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범죄가 발생한 공간을 독립적이고 밀폐된 세계로 축소함으로써 세계대전으로 인해 불안한 독자들에게 편안함을 안겨주는 효과를 노렸지만, 〈비밀의 숲〉에서는 ‘비밀의 숲’의 은유적 전이를 통해 검찰이란 폐쇄된 환경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동시대 한국사회의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범죄로 확장시켜 수용자들로 하여금 현실의 이면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만든다.<sup>30)</sup>

‘비밀의 숲’이라는 시공간에는 부패사회의 민낯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인물들이 거주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윤범은 검사 사위 이창준을 앞세워 막대한 부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축적한 거액의 화신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탈세, 불법증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온갖 비리를 일삼으면서도 “대한민국 GDP 30%를 책임졌다”, “국민을 먹여 살렸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며 희생했다”, “한조그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항변하는가 하면, 검찰에 소환될 때 혈체에 탄 채 질병을 위장하는 등의 부도덕성은 우리가 현실에

30) 존 스킵스, 『범죄소설』, 나영균·전수용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82-88쪽 참조.

서 익히 봐왔던 특권층의 행태와 상동성을 지닌다. 또한 자신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하게 제거하는 마피아의 보스와 동일하다. 불법증여에 관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청렴한 법조인 영일재를 뇌물수수사건으로 조작하여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아버지의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절치부심 기회를 노리던 영은수를 감쪽같이 살해하는 식이다. 더욱이 사위 이창준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한조그룹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창준의 자살과 한조그룹과는 무관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냉혈한이다.

재벌사위 이창준은 이윤범의 막강한 재력과 로비를 등에 업고 형사3부 차장 검사에서 검사장,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승승장구 출세의 가도를 달리지만, 정치검사 이창준의 권력은 언제나 이윤범의 축재에 이용될 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기념으로 마련한 거사는 이윤범의 부정축재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정점에 해당한다. '무기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수십조에 달하는 방산비리를 저지르면서도,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이고 무기도입이 기밀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축복이라 여긴다거나 '아무도 방산비리를 막을 수 없다'며 합리화할 뿐 일말의 공동체의식이나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바로 이어 '금융선진화'이란 미명 하에 저지른 금융비리의 결실 역시 고스란히 아들 이성재의 계좌로 빼돌리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윤범이 '비밀의 숲'에서 거주하는 부패의 원천이자 가해자의 전형이라면, 수사부 윤세원 과장은 부패권력이 개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고스란히 내몰린 피해자의 전형에 해당한다. 윤세원은 2년 전 불량자동차 화재사건으로 소풍가던 유치원생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은 이후 삶 전체가 황폐화된 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생존권 박탈자이다. 자동차부품회사를 운영하던 박무성이 불량부품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당시 검사

장 배상욱에게 뇌물을 상납하여 세무조사를 면하게 됐던 검찰비리로 인해 선량한 소시민의 삶이 송두리째 짓밟힌 재난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드레일 부실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것이다. 국가권력과 법이 더 이상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한 윤세원은 박무성의 살해를 계획한다. 우리가 살아왔던 부패 공화국에서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제든 재난의 피해자로 내몰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윤세원이 겪은 끔찍한 고통과 분노는 언제든 재난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 우려하는 잠재적 피해자들의 공분을 대변한다.<sup>31)</sup>

그러나 개인적 차원의 복수는 이창준의 지적대로 '도살장에서 한 마리의 개죽음'에 지나지 않을 뿐 그 파급력은 지극히 미미하다. 진정한 복수를 하려면 냉철한 이성에 기반한 치밀한 계획이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이창준은 이윤범의 실체를 폭로하고 검찰의 자정능력을 회복한다는 정교한 설계를 기획한 다음, 복수심에 불타는 윤세원을 자경단으로 고용하고 한직에 밀려난 황시목을 불러들여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던 것이다. UDT 출신의 민첩하고 과묵한 수사관 윤세원은 이창준의 밀명에 따라 박무성 살해사건과 김가영 상해사건을 주도면밀하게 실행하여 개인적 복수에는 성공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적 처벌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국가권력과 법이 더 이상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역설적이게도 법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법치주의로 환원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31) 브래드 에반스·줄리언 리드, 『국가가 조장하는 위험들-위기에 내몰린 개인의 생존법은 무엇인가?』, 김승진 역, RHK, 2018, 133-142쪽 참조.

처세의 달인 서동재 역시 부패한 검찰 내에 존재할 개연성이 높은 인물이다. 황시목과 이창준, 이윤범 사이를 오가는 위태로운 줄타기는 학연과 위계질서가 강고한 검찰조직에서 지방출신의 검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처세술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이창준과 황시목, 영은수를 비롯해 서부지검 내 막강한 학연세력인 서울대 출신의 견고한 동문 모임에 진입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서동재에게 ‘그들만의 연대’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소외감과 언제든 한직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의 원천심리로 작동한다. 그리하여 숨이 끊어지기 직전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창준의 충고에 잠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내 출세욕에 사로잡혀 비리를 서슴지 않는 처세의 달인으로 회귀한다. 서동재의 생존전략은 다수의 눈치를 보고 힘 있는 사람 위주로 움직이는 검찰조직의 생리를 상동적으로 반영한다.<sup>32)</sup>

한편, 청렴결백한 법조인 영일재는 모든 검사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표(師表)이지만, “장관님은 왜 가만히 계셨느냐”는 황시목의 항변대로 실천하지 않는 이론가이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을 상징한다. 이윤범을 향한 “사람을 죽이고도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영일재의 분노에 찬 호통은 검찰과 재벌의 부패상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지언정 검찰개혁의 직접적인 동력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검사 중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온몸을 불살랐던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드물다는 사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개할 일이다”<sup>33)</sup>는 어느 법조인의 고백에 비춰보면, 영일재의 무기력함은 부패한 검찰조직의 생리에 대한 환멸적 고발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신의 논리를 내세워 적당히 타협하는 강원철

32) 최강욱,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창비, 2017, 55-73쪽 참조.

33) 최강욱,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창비, 2017, 52쪽.

부장이나 조직의 수장임에도 존재감 없이 자리보존에 치중하는 검찰총장 등과 같은 인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검찰조직에서 적어도 영일재처럼 청렴결백한 법조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수용자들의 기대와 원망(願望)이 역설적으로 투영된 것이다.

### 3-2. ‘시대가 만든 괴물’과 정치적 사유에 의한 정의구현이라는 환상

TV드라마를 시청하는 수용자들은 극적 체험을 욕망한다. 적어도 TV드라마에 투여하는 시간만큼은 비루한 현실에서 경험하기 힘든 환상적 상상의 시공간에 자신을 의탁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등장인물을 향해 현실에 대한 욕망과 그것을 능가하는 환상에 대한 욕망을 투사하며 자신과 동일시가 가능하면서도 그 이상을 소유한 인물과 조우하기를 기대한다.<sup>34)</sup> 이때 환상은 현실에서 부재하고 억압당한 경험을 들춰내 현실에서 통용되는 속박으로부터 야기된 결핍을 보상해준다. 그러므로 TV드라마 상에서 저자나 수용자들의 대리경험으로 투사되는 환상은 현실의 경직된 질서와 체계에 억눌린 욕망을 드러내는 통로이자,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기를 기대하는 원망(願望)의 상응이다.<sup>35)</sup>

앞 장에서 살펴본 인물들이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부패한 한국 사회의 현실과 상동구조를 이룬다면, 이들과 다른 시각으로 ‘비밀의 숲’을 조망하는 이창준과 황시목, 한여진은 수용자들의 환상을 충족하기 위해 형상화된 영웅적 인물들이다. 황시목에 따르면 ‘시대가 만든 괴물’이고,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거대한 규모의 범죄가 짓누르고 있는 칠혹 같은 어둠의 시대를 탈피하기 위해 정치적 사유를 하는 저항적 인간들

34) 박노현, 『드라마, 시학을 만나다』, 휴머니스트, 2009, 300-302쪽.

35) 로즈메리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화연구회 옮김, 문학동네, 2001, 13-15쪽 참조.

이다. 이들은 어둠의 시대에 순응하며 사적 소유와 이익에 함몰되어 ‘자기 행위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전자의 인물들과 달리,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서 사유함으로써 공동체에 드리워진 어둠을 제거하는 ‘실천이성의 소유자’이자 ‘법에 대한 복종 이상을 행하는 도덕적 입법자들이다.’<sup>36)</sup>

이창준은 권력의 카르텔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어두운 민낯을 폭로하기 위해 비밀리에 거대한 기획을 수립한 설계자이자 자신이 세운 설계에 따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비극적 인물이다. 재벌 사위라는 자격조건은 검사장에서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출세가 보장된 루트로 기능하지만, 부정부패의 근원인 정경유착과 ‘재벌에 충실한 앞잡이’ 정치검사로 살아야 하는 모순을 안겨준다. 우리가 익히 뉴스에서 보았던 대로 부패한 대한민국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검사들은 재벌사위와 정치검사의 특권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활용하며 현실적 순응주의자로 살아가지만, 환상을 충족하기 위해 형상화된 이창준은 어둠의 시대를 극복하고 정의구현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이런 점에서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한 이창준은 비극의 주인공 오이디푸스를 연상시킨다. 오이디푸스가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이자 법을 위반한 범죄자인 것처럼, 이창준 역시 법을 수호해야 할 범조인이자 법을 위반한 범죄자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그러나 오이디푸스의 비극이 신이 내린 운명에서 비롯된 반면, 이창준의 비극은 부패로 얼룩진 어두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정의구현이 실현되는 도덕사회를 수립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다.<sup>37)</sup>

36)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옮김, 한길사, 2004, 216-217쪽; 임철규, 『죽음』, 한길사, 2012, 138-140쪽; 홍원표, 『어두운 시대의 정치, 사유 그리고 윤리—한나 아렌트의 색채 은유와 그 정치적 의미』, 『정치·정보연구』 제16권 제2호, 2013, 320-326쪽.

37) 존 스펙스, 『범죄소설』, 나영균·전수용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23-24쪽 참조.

이창준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정경유착의 실상을 세상에 폭로한 의인, 부정부패를 함께 도모한 배신자에 대비해 협박용으로 녹취파일과 증거물을 남기고 떠난 비겁한 범죄자, 검찰의 비리를 외부에 알린 내부 고발자 등으로 크게 엇갈린다. 그러나 저자에 의해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자질의 총합으로 육화된 등장인물이 저자와 수용자 사이를 중개하는 일종의 통역자라는 점<sup>38)</sup>을 환기하면, 긴장감 넘치는 게임의 플롯이 진행되는 내내 이창준이라는 등장인물이 보여준 씩씩하고 공허한 표정은 그가 부패사회를 환멸적으로 조롱하는 고발자이자 어두운 시대에 저항하는 정치적 사유자라는 저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창준이 환하게 웃을 때는 오직 아내 이연재와 함께 있을 때뿐이지만, 정치검사로서 최고의 자리인 민정수석 확정 소식을 전할 때조차 이내 씩씩하게 바뀌는 이창준의 표정을 통해 시청자들은 이윤범을 향한 복수의 비극적 귀결점을 예견하게 된다. 또한 불법증축으로 공사가 중단된 음침한 건물 위에서 황시목을 향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멀리 떠나기 좋은 날씨네, 좀 천천히 와라는 마지막 말을 건네며 씩씩하게 웃는 표정은 정의구현이 실현되기 위해서 ‘죽어야 산다’는 역설적 명제를 몸소 실천한 비극적 영웅의 종말을 장식한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현실은 대다수 보통사람은 그래도 안 전할 거란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붕괴된 후다. 사회가 해체의 단계다. 검사로서 19년을 이 붕괴의 구멍이 바로 내 앞에서 무섭게 커가는 것을 지켜만 봤다. 설탕물밖에 먹은 게 없다는 할머니가 내 앞에 끌려온 적이 있다. 고물을 팔아 만든 3천원이 전 재산인 사람을 절도죄로 고소한 날도 있다. 낮에는 그들을 구속하고 밤에는 밀실에 갔다. 그곳엔 말 몇 마디로 수천억을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난 그들이 법망에 걸리지 않게 지

38) 박노현, 『드라마, 시학을 만나다』, 휴머니스트, 2009, 300-302쪽.

켜봤다. 그들을 지켜보지 않을 땐 정권마다 던져주는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받아 적고 이행했다. 우리사회가 적당히 오염됐다면 난 외면했을 것이다. 모른 척할 정도로만 씩었다면 내 가진 걸 누리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몸에서 삐걱 소리가 난다. 더 이상 오래 묵은 책처럼 먼지만 먹고 있을 수는 없다. 이 가방 안에 든 건 전부 내가 갖고 도망치다 빼앗긴 것이 돼야 한다. 장인의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의 유품이 아니라 끝까지 재벌회장의 그늘 아래서 호의호식한 충직한 개한테서 검찰이 뺏은 거야 한다. -중략- 부정부패가 해악을 넘어 사람을 죽이고 있다. 기본이 수십 수백 개의 목숨이다. 처음부터 칼을 뺏어야 했다. 첫 시작부터.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칼을 들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건 시간이 아니요 돈도 아니다. 파괴된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건 사람의 피, 수많은 사람의 피. 역사가 증명해 준다고 하고 싶지만 피의 제물은 현재진행형이다. 바뀌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엇 이든 찾아 판을 뒤엎어야 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치유시기를 놓쳤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날 대신해서 오물을 치워줄 것이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기다리고 침묵하면 온 사방이 곧 발 하나 디딜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이제 입을 벌려 말하고, 손을 들어 가리키고, 장막을 치워 비밀을 드러내야 한다. 나의 이것이 시작이길 바란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개혁 실패의 누적물’인 이창준의 비장한 유서에는 〈비밀의 숲〉을 통해 저자가 수용자들에게 건네는 메시지, 즉 주제가 응축되어 있다. 저자는 이창준의 유서를 통해 부정과 부패로 해체일로 있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시대정신, 부정부패가 해악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수많은 사람의 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절박한 역사의식, 파괴된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함께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정의구현을 실현해야 한다는 공동체의식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수용자들에게 엄중하게 호소하

고 있는 것이다.

이창준이 참회한 바대로 법조인들은 ‘정권마다 던져주는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말 몇 마디로 수천억 원을 빨아들이는 재벌과 정치권의 부정을 비호해주며 부정부패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가 사법 부패 및 불신의 원인으로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사법부의 뇌물수수를 지적했던 것처럼, 법조인들의 탐욕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부정부패의 고리가 형성됨에 따라 정의의 잣대는 위협받고 보통사람들이 고통 받게 되었지만, 법과 원칙을 온전하게 지키려는 검찰의 자정능력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배계급과 마찬가지로 법조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의와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였다’는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한다거나 ‘검찰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마치 보편적 이익에 봉사하는 것처럼 위선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sup>39)</sup>

우리가 목도해온 대로 뿌리 깊은 사법농단과 검찰비리는 결코 단시간에 척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학연과 지연, 혈연으로 얽힌 특권의식과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힌 검찰조직을 낱알이 해부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샅샅이 밝혀내어 공적 영역에서 목소리를 높여 말을 해야 한다. 법은 인간의 욕구로부터 해방된 이성이고, 올바르게 제정되고 적용되는 법이야말로 최고의 권력이라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원리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법질서를 적용할 수 있는 도덕이성이란 덕목이다.<sup>40)</sup> 이런 점에서 어릴 적 뇌선엽 수술로 감정이 제거되는 대신 인지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학연과 지연, 혈연에 얽

39) 최강욱,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창비, 2017, 180-183쪽 참조; 라인홀드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한우 옮김, 문예출판사, 2006, 160-175쪽 참조.

40)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천병희 옮김, 숲, 2012, 166-188쪽 참조.

매이지 않고 공평무사한 소시오패스적인 검사 황시목은 검찰조직의 부패와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최적임자이다. 체제 전복의 기획을 설계한 이창준이 황시목을 끌어들여 ‘입을 벌려 검찰의 부패를 말하고 손을 들어 가리키기’기 위한 위험한 게임을 벌였고, 마침내 ‘비밀에 가린 검찰의 장막을 거둬내’는데 성공했던 것은 바로 도덕이성의 힘이다. 그러므로 ‘부패와 비리로 오염되어 대다수 보통사람들이 안전할 거라 믿는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붕괴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도덕이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황시목 검사 역시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요청한 괴물이자, 어두운 시대의 법에 저항하는 정치적 사유자이다.

우리 검찰은 그릇된 것을 바로잡은 사정기관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와 권력에 맞춰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아닌 범죄자를 비호했습니다. 검찰의 가장 본질적 임무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실패의 누적물이 이창준 전 검사장이며 우리 검찰 모두가 공범입니다. 물론 제가 저희 동료 모두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집행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는 한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검찰, 더 이상 부정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한 번 싸우겠습니다. 기소권을 더 정확한 곳에만 쓰겠습니다. 검찰의 진정한 임명권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더욱 공정할 것이며 더욱 정직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이런 괴물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검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황시목이 이른바 ‘특별기획’이창준 게이트가 드러낸 정경유착의 현실이라는 TV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검찰의 과오와 비리를 인정하고 국민을 향해 사과한 내용이다. TV드라마 상에서 TV시사프

로그그램을 중첩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드라마의 현실성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TV드라마의 현실성(reality)은 텍스트 내부의 허구가 텍스트 외부의 사실과 흡사하게 체험되는 경험적 리얼리즘과 극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행동하는 인물에 대한 정서적 공감에 의해 형성되는 정서적 리얼리즘이라는 두 가지 방식에 의거하여 확보되기 때문이다.<sup>41)</sup>

TV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황시목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실패했고, 법을 시민이 아닌 범죄자를 비호하는데 사용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와 권력에 아부하는데 적용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아울러 “검찰의 진정한 임명권자는 바로 국민임을 명심하겠다”고 엄중하게 약속했다.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 진심어린 사과, 약속의 엄중한 이행’은 지금 여기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 대다수가 부패사회를 만든 권력자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 하는 희망의 언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솔직하게 겪어왔던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면, 현실세계에서 이런 희망의 언설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선의 기미조차 찾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현실세계를 살아가는 수용자들은 비록 드라마 상에서나마 죽음을 감수하면서 정경유착과 검찰비리를 폭로한 이창준이나, 검찰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황시목과 같은 환상적 인물에 정서적으로 공감하게 된다. 환상은 현실에서 부재하고 억압당한 경험을 들춰내 현실에서 통용되는 속박으로부터 야기된 결핍을 보상해준다는 점<sup>42)</sup>을 환기하면, 이창준이나 황시목이라는 ‘시대가 만든 괴물’들이 조용하는 환상은 부정부패로 얼룩진 어두운 시대에서 정의구현이 어렵다는 점을 선

41) 박노현, 『드라마, 시학을 만나다』, 휴머니스트, 2009, 280-309쪽.

42) 로즈메리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문학동네, 2001, 13-15쪽 참조.

협적으로 취득한 수용자들에게 드라마 상에서나마 역설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일말의 위안과 희망을 안겨준다.

그러나 환상에서 깨어나 이창준과 황시목과 같은 영웅적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현존의 법치국가 모델에서 진정한 사법개혁이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쉽게 끊을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의 숲’은 여전히 건재하다. 형식만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자본권력은 소수의 지배계급의 특권을 향유하기 위해 사법적 심판을 벗어나 있고 사법을 포함한 국가와 사회의 권력을 총체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3)</sup> TV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황시목은 “되니까 하는 거다 눈감아주고 침묵하니까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다. 누구하나 제대로 눈 부릅뜨고 짚어대면 바꿀 수 있다”는 한여진의 말을 인용하여 국민을 향해 어두운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가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자’고 요청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냉철한 황시목 검사와 콤비를 이루어 미스터리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한여진은 설록 홈즈의 조력자로 머물러 있는 왓슨과 달리 황시목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이끌어간다. 황시목이 냉철한 이성으로 오로지 원칙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행동하는 도덕이성의 소유자라면, 한여진은 눈물 많고 정도 많은 온정적인 경찰이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항거하는 정의로운 도덕감정의 소유자이다. 한여진은 ‘정상납게이트’로 특검에 소환된 용산경찰서장 김우균이 결백을 주장하자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강경하게 항의하는가 하면, ‘민주경찰 민생경찰’을 내세우면서도 돈 없고 힘없는 자들에게 위압적인 경찰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 또한, 오랜 투병 후에 다시 성매매에 나서는 김가영을 향해 인정어린 호통을 치

43) 안치용, 『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 내일을 여는 책, 2017, 4-8쪽.

는 유일한 경찰이다.

한나 아렌트는 거대한 규모의 범죄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면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정치적 사유만이 거대한 범죄가 질게 드리워진 어둠의 시대에서 탈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순응주의는 평범한 악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에, 모두가 악행의 정치가 지배하는 칠혹 같은 어둠의 시대에 더 이상 순응하고 침묵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의견을 표출하고 저항하는 정치적 사유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sup>44)</sup>

이런 맥락에서 한여진은 <비밀의 숲>의 등장인물 중 부정부패로 얼룩진 칠혹 같이 어두운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사유능력과 판단능력을 지닌 '사유하는 시민'이다. 한여진은 무죄한 박경완을 김가영 상해사건의 용의자로 몰아세우고 폭행과 감금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동료 경찰들을 향해 '잔인한 악마라며 분노할 뿐 아니라, "이들이 처음부터 악마가 아니라 눈감아주고 침묵하니까 부정을 저지르고 잔인한 악마가 되었다"고 소리 높여 주장한다. 아울러 공권력의 부당한 폭력에 묵묵히 순응하는 박경완에게 눈물어린 사과를 하지만, "침묵하면 2주 후에 방면되고 떠들면 계속 감금시키는 게 검찰의 방침"이라는 황시목을 향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이유로 선택이 아닌 침묵을 강요당하고 살아가느냐,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한다. 이는 아이히만이 애초부터 살인광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히틀러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유가 불가능한 무사유자가 되었다는 '악의 평범성'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sup>45)</sup> "누구 한 사람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짓어

44) 홍원표, 『어두운 시대의 정치, 사유 그리고 윤리—한나 아렌트의 색채 은유와 그 정치적 의미』, 『정치·정보연구』 제16권 제2호, 2013, 327-341쪽에서 재인용.

45) 리차드 J. 번스타인, 『한나 아렌트와 유대인 문제』, 김선옥 옮김, 아모르문디, 2009, 220-223쪽.

대면 바꿀 수 있다”는 한여진의 주장은 <비밀의 숲>을 통해 저자가 수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칠혹같이 어두운 시대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우리 모두 정치적 사유자이자 깨어 있는 시민이 되자”는 메시지이다.

이창준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게임의 플롯도 끝이 났지만, 드라마가 전하는 메시지는 수용자들에게 강렬한 환상을 안겨준다. 남해로 내려가는 길에 황시목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동백꽃 아가씨’를 들으며 왜색이란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했던 공권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저항시인이라는 이유로 교권이 거부당한 노시인을 변호했던 초창기 이창준 검사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이 오버랩되며, 환상의 여운은 ‘파괴된 시스템을 복구하여 정의로운 국가로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진지한 질문으로 확대된다. 비록 칠혹같이 어두운 현실로 돌아오면 환상이 희미하게 점멸할지라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이창준과 같은 ‘괴물’이 앞장서서 손을 들어 가리키고 장막을 치워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황시목과 한여진 등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입을 벌려 말한다면, 또한 이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 깨어 있는 시민으로 거듭난다면 언젠가 이런 환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겨준다.

#### 4. 결론

지금까지 방영 당시부터 ‘한국 드라마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극찬을 받았던 <비밀의 숲>을 분석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TV드라마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비로소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캐릭터를 시도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 <비밀의 숲>이 뉴

유타임즈가 선정한 국제 TV드라마 TOP 10에 입선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그 질적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그간 다양한 제재와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시도됐지만, 〈비밀의 숲〉은 동시대적 사회현실의 문제를 진지하게 파헤치는 사회파드라마에 대중들이 즐기는 추리드라마를 외피로 입혀 사회를 향한 비판과 대중적 재미를 고루 갖춤으로써 TV드라마의 미학적 정당성을 한층 높여준 드라마이다.

이런 점에서 2장에서는 〈비밀의 숲〉이 범죄이야기와 탐색이야기의 이중구조를 차용하면서도 은폐와 탐색의 공식을 위반하는 설계이야기가 겹쳐지면서 텍스트의 의미가 확장되는 액자구조를 이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액자구조는 ‘비밀의 숲’처럼 가려진 부패한 검찰 나아가 한국 사회의 동시대적 부패상을 낱낱이 폭로하겠다는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서사적 장치이다. 따라서 부패사회를 폭로하는 정치검사와 부패사회를 해부하는 감정이 제거된 평검사가 벌이는 게임의 플롯은 패배와 승리라는 폐쇄적 결말로 끝나지 않고 거시적인 플롯으로 확장하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도덕적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진지한 질문에 직면하게 만든다.

3장에서는 ‘비밀의 숲’으로 재현된 공간이 폐쇄적인 검찰이자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에 의해 무소불위의 부와 권력을 축적한 부패한 한국사회의 은유이며, 그 은유가 등장인물에 따라 다양하게 전이되는 양상을 살펴봤다. ‘비밀의 숲’이라는 공간에는 어둠의 시대에 순응하며 사적 소유와 이익에 함몰되어 있는 부패한 인물이 거주하지만, 동시에 부정부패로 얼룩진 어둠의 시대를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으로 조용하고 저항하는 정치적 사유자들이 공존한다. 전자의 인물들을 통해 부패사회에 대한 환멸적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후자의 인물들을 통해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안겨준다.

이처럼 〈비밀의 숲〉은 처음에는 게임의 플롯에 따라 은폐된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추리드라마로 시청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지만, 점차 부패한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사회파드라마로 시청자들을 끌어 들인다. 그리고 마침내 정교하게 짜인 서사구조를 통해 칠혹 같은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청자들, 나아가 국민을 향해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여기에서 정의로운 국가를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정치적으로 사유하는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진중하게 전달한다. 그리하여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이 됐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던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게 만든다. 〈비밀의 숲〉이 방영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 메시지는 여전히 진중하게 다가온다. 드라마가 보여준 정치적 사유에 의한 정의구현이라는 환상은 강렬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축적된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런 점에서 한편의 TV드라마는 한 사회의 문화를 표상하는 유의미한 텍스트이자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라는 진지한 화두를 던져주는 인문학적 텍스트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형 범죄서사, 또는 한국형 장르 드라마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이거나 저널리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의 틈새를 모색한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작품 분석에 중점을 두어 한국 범죄서사 드라마의 계보나 사적 추이를 고찰하지 못한 점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논문

- 권양현, 「텔레비전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캐릭터 유형의 변화 양상 연구-〈싸인〉, 〈유령〉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42집, 2013, 251-278쪽.
- 김봉석, 「왜 미국 드라마 열풍인가」, 『창작과 비평』 제136호, 2007, 408-419쪽.
- 김유미, 「2000년대 텔레비전 추리드라마의 특징-심리적 요소의 활용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61집, 2010, 191-224쪽.
- 김희정, 「미야베 미유키의 『이유』론-소재로서의 버블경제와 사회파추리소설」,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권일, 「'헬조선' 체제를 유지하는 파국론」, 『황해문화』, 2016. 봄, 73-95쪽.
- 박노현, 「텔레비전 드라마와 시민(성)-은유로서의 시민, 視民에서 市民으로」, 『서강인문논총』 제35집, 2012, 203-244쪽.
- 신주진, 「TV드라마 〈추적자〉의 정치학과 이데올로기」, 『대중서사연구』 제23권 제2호, 2017, 256-291쪽.
- 원용진, 「문화연구의 텔레비전 담론」, 『문화과학』 제45호, 2006, 195-208쪽.
- 윤석진, 「TV드라마 연구 방법에 대한 시론-KBS 미니시리즈 〈겨울연가〉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9호, 2003, 193-218쪽.
- 윤석진·박상완·권양현, 「한국 텔레비전 장르드라마 연구」, 『건지인문학』 제18집, 2017, 160-188쪽.
- 임 훈·주효진, 「케이블 TV 법정드라마 등장인물의 원형분석-〈굿와이프〉와 〈비밀의 숲〉을 대상으로」, 『한국자치행정정보』 제31권 제4호, 2017, 263-287쪽.
- 최 원, 「국가란 무엇인가」, 『황해문화』, 2016. 여름, 20-36쪽.
- 홍원표, 「어두운 시대의 정치, 사유 그리고 윤리-한나 아렌트의 색채 은유와 그 정치적 의미」, 『정치·정보연구』 제16권 제2호, 2013, 319-348쪽.

### 2. 단행본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일본 추리소설 사전』, 학고방, 2014.
- 김봉석 외, 『탐정사전』, 프로파간다, 2014.
- 김용수, 『드라마 분석 방법론-그리고 TV드라마의 해석을 위하여』, 집문당, 2014.
- 김용언, 『범죄소설, 그 기원과 매혹』, 강, 2012.
- 도로시 L. 세이어스, 『탐정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박현주 옮김, 북스피어, 2013.

- 라인홀드 니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한우 옮김, 문예출판사, 2006.
- 레이먼드 윌리엄스, 『이념과 문학』, 이일환 역, 문학과지성사, 1988.
- 로즈메리 잭슨, 『환상성 - 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문학동네, 2001.
- 리처드 J. 번스타인, 『한나 아렌트와 유대인 문제』, 김선옥 옮김, 아모르문디, 2009.
- 박노현, 『드라마, 시학을 만나다』, 휴머니스트, 2009.
- 브래드 에반스·줄리언 리드, 『국가가 조장하는 위험들 - 위기에 내몰린 개인의 생존법은 무엇인가?』, 김승진 옮김, RHK, 2018.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천병희 옮김, 숲, 2012.
- 안치용, 『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 내일을 여는 책, 2017.
- 에르네스트 만델, 『즐거운 살인, 범죄소설의 사회사』, 이동연 옮김, 이후, 2001.
- 이충진, 『세월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철학의 물음』, 이학사, 2015.
- 임철규, 『죽음』, 한길사, 2012.
- 존 스캐스, 『범죄소설』, 나영균·전수용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토마 나르스작, 『추리소설의 논리』, 김중현 옮김, 예림기획, 2003.
-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역, 한길사, 2004.
- \_\_\_\_\_,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옥 역, 한길사, 2006.
- M.E. 토머스, 『나, 소시오패스 - 차가운 심장과 치밀한 수완으로 세상을 지배한다』, 김학영 옮김, 푸른숲, 2014.
- Knight, Stephen, *Form and Ideology in Crime Fiction*, Basingstoke Macmillan, 1980.
- Plain, Gill, *Twentieth-century crime fiction: gender, sexuality and the body*, Edinburgh & Chicago: Fitzroy Dearborn Publishers, 2001.
- Thompson, Jon, *Fiction, Crime and Empire: Clues to Modernity and Postmodernism*,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3.

## Abstract

The Moral Reason Dissecting the Corrupt Society and the Illusion of  
Achieving Justice  
— Focusing on the TV Drama Series *The Secret Forest*

Lee, Jung-Oak(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scrutinizes *The Secret Forest*, which has been praised as a well-made TV drama series, as work of crime fiction. While the approach in the previous study on the TV drama has confined *The Secret Forest* to the drama genre that touches up on a detective or crime-investigation narrative, this study analyzes *The Secret Forest* with the wider viewpoint encompassing crime fiction.

*The Secret Forest* is a crime fiction equipped with both criticism and entertainment; it interweaves social issues that expose corruption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in the guise of the popular speculative drama genre. The narrative of *The Secret Forest* is constructed in layers where crime investigation overlaps with design of concealment and exploration. The result is a frame narrative. The space of the 'secret forest' is the trope that illustrates the corrupt and exclusive arena of the Prosecutors Office and its accumulated powers and wealth in politics and indictment. In this space, corrupt figures conform to the times of darkness and are engulfed in private ownership and personal interests. In contrast, political thinkers resist to escape from such darkness and corruption. Throughout the series, the corrupt society is accused and accused with disillusionment by these corrupt figures and the hope of eradicating corruption and ushering in a new era is sought by the political thinkers.

Previous studies on the Korean style of crime fiction or TV drama have been fragmented or stopped at the level of journalism. In this respect, the aim of this paper can be seen to be a search for a niche of academic discussions on *The Secret Forest* in terms of the theory of crime fiction. However, it puts more weight on analyzing *The Secret Forest* itself. Thus, a further study on the genealogical or historical trends of Korean crime fiction should be researched.

부패사회를 해부하는 도덕이성과 정의구현이라는 환상 / 이정옥 429

(Keywords: crime fiction, the corrupt society, moral reason, moral emotion, a corpse-as-signifier, political thinking, disillusionive accusation, paradoxical illusion)

논문투고일 : 2018년 7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8년 7월 29일

수정완료일 : 2018년 8월 8일

게재확정일 : 2018년 8월 13일